

우리나라에는 여러가지 행사가 있습니다만 저는 그 중에 졸업, 특히 남학교의 졸업식을 화제로 말하려 합니다.

일본도 같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국의 남학생들은 긴 시간동안의 교육이 끝날 때, 다시 말하면 고교 졸업식은 정말이지 축제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묶여있던 학교라는 곳과 헤어지기 때문에 모두 기뻐합니다. 미래의 불안감도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대부분 즐거워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짓궂은 학생들은 학교의 유리창, 책상, 의자 등을 부수거나 심한 장난을 칩니다. 또 식당에선 학생들이 교복을 찢거나 계란을 던지거나 밀가루를 뿌리거나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런 심한 일은 보기 힘듭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교복을 물려주는 일이 흔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일어나선 곤란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학생들 모두가 이런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난이 심한 학생들도 모두 선생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졸업 후에도 때때로 선생님과 만나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거나 상담을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졸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